



완주 생생문화제 지역 아이들에게 '호응'

역사를 배우다

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청·완주군 등이 참여
오늘까지 삼례문화예술촌 등서

문화재이야기·역사유적탐방
동학농민 혁명 함성 재현 등
볼거리·즐거거리 '다채'

지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둘째 날에는 팝업북과 퍼즐로 만나는 완주문화재이야기, 내 안의 양곡창고, 동학농민 점심식사, 역사유적탐방 전문준을 찾아라, 동학농민 혁명의 함성 재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이번 행사는 삼례문화예술촌, 만경강 철교, 이치 전적지, 완주 독립기념관 등 청소년들이 역사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현장의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나눔의 정신을 키워주는 수단법이다.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은 지역아동청소년들과 지역민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의적 효과를 극대화한 팝업북, 퍼즐, 역사 인물을 통한 진로여행, 영어탐 역사 속으로, 역사인물을 접목한 창작 보드게임 등을 통해 즐기면서 배우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 유적지에 기초한 출판물을 간행하였고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 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탁월한 아이디어로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출판물과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꿈나무들이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미래의 꿈을 펼치는데 일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제4차 완주생생문화제는 자라나는 지역아동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삼례지역이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1박 2일의 체험일정표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날 일정은 동학농민 음식 체험과 인문학공연, 사발뽕문과 동학깃발 만들기, 1년 후 나에게 편

완주군은 앞으로 소외된 우리지역문화의 가치 발굴 과 다양한 지역전문화를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개발육성을 위해 우리지역문화 활동가와 거점기관 발굴을 통해 소외된 우리지역문화 활성화프로그램 개발·기획 및 네트워크지원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 이인옥 대표는 "아직도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우리 지역역사와 우리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아, 지역민의 관심도가 낮아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지역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향유 할 수 있도록 이번 생생문화제를 통해 효과적인 우리지역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하예랑은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역사문화리더십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역사문화(생태)리더십 강사과정은 운영하여 민간자격증인 역사문화(생태)리더십 강사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부안지방교육청에서 오는 24일에 열리는 역사문화(생태)리더십 강사과정에 참여할 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중국과 미국 교민(한국학교교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 생생문화제가 지역 아동청소년들과 가족들(다문화가족 포함), 지역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성황을 이루고 있다.

생생문화제는 각 지역에 있는 소중함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완주군청 그리고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 이 지역단체와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간 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제4차 완주생생문화제(삼례, 동학농민혁명기념로 피는 우리들의 꿈)가 14일까지 1박2일로 완주군 공주팔취한옥리조트와 삼례문화예술촌(완주 구 삼례 양곡창고: 등록문화재 제580호), 구만경강철교(등록문화재 제579호) 등에서 지역 아동청소년들(완주열린마미 농촌유학센터)과 (사)배달겨레역사재단 임원들,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들 총40여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열린다.

완주군과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은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총 7차례 진행되는 완주 생생문화제는 이미 3차까지는 안전하게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코로나19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추진한다.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체험진로여

'도내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28일까지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이 도내 예술인 '역량강화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전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 도내 예술인의 저작권 교육과 전산 교육 등 실무중심의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진행되는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은 1회차 '예술가들의 권리를 상승시킬 계약과 저작권 가이드', 2회차 '예술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노동인권 퓌팅', 3회차 '실무자에게 직접 듣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완전정복!', 4회차 '아티스트 자기 PR시대'란 제목

으로 9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1층 '구름'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예술인들은 28일까지 이메일(jb_7447@hanmail.net) 또는 전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48, 7449)로 신청을 하면 된다.

문예진흥팀 박찬영 팀장은 "이번 전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진행되는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기획과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들의 실무능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48, 744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대응 위한 '에코페미니즘'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제2차 성평등 포럼 성료

삶의 패러다임 전환 따른 공생 여성주의 시각서 조명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는 13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 홀에서 '에코페미니즘, 포스트코로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2차 전북 성 평등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신종 코로나 확산사태의 근본 원인은 개발 지상주의로 인해 파괴된 지구환경의 메시지를 에코페미니즘 시각에서 성찰과 평가를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삶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자연과 공생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봤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끊임없는 생산 및 소비와 폐기로 자연이

파괴되고 동시에 여성과 제3세계가 희생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페미니즘 관점을 결합하고 전북지역의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공동체운동의 소통과 민관협력의 모델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단위 돌봄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은 코로나 이후의 자연과 공생을 위해 우리는 소비를 줄이고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여성들의 정치적 힘과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인턴학예사들이 그리는 긍정·희망의 에너지

전북도립미술관 'POSITIVE VIBES

ONLY 긍정의 미학展' 21일까지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려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이 전시와 가까워지고, 미술이 일상의 일부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가고 역할을 한 것 같아 좋습니다. 미술관 현장에서 배우는 다양한 경험을 살려 시각예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 교육문화팀 인턴 학예사 김미래씨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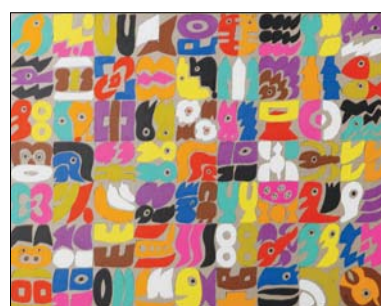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 도청기획전시실에서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전시회 'POSITIVE VIBES ONLY 긍정의 미학展'이 열린다.

전북도립미술관은 미술관 현장에서 학예업무 전반을 체험해 미술관 실무경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인 학예사제도 경력인정 기관이다. 2020년에 선발한 총 4명의 학예사 인턴(김도현, 김미래, 변혜지, 이영인)을 포함, 도내 학예사 양성 및 지역 미술관 진흥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학예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9명의 학예사 인턴을 배출, 8명의 3급 정학예사와 1명의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했고, 이들은 순창미술관, 교동미술관, 문화공간 기린, 삼례문화예술촌 등 지역의 다양한 시각문화 공간에서 학예사로 근무 중이다.

매년 인턴학예사들의 기획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이번 전시는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관 학예연구팀 김도현, 변혜지, 이영인이 공동기획했다.

전시회에는 한국화의 강영봉, 이희주, 회화의 나인하, 노성기, 도병락, 이춘기, 조기풍, 하상용, 홍현철, 황소연, 황영성, 조각의 김기호, 박종대, 미디어의 박성애 등 총 14명의 미술가가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소장품 총 17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2020년 창궐한 코로나 19로 대두된 전 세계적 혼란 속에서 상실과 공허의 감정을 함께 공감하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울려퍼 각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힘으로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한다.

또한, 각자의 방법으로 세계를 이야기하는 작품들과 어려운 현실을 넘어 희망과 긍정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미술가와 관객, 관객과 관객 간의 희망이 담긴 정서 교류가 지속되기를 염원한다.

전북도립미술관 김은영 관장은 "앞으로도 전북지역 학예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전시 기획과 다양한 미술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객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인턴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청기획전시실은 무료이며, 토, 일, 공휴일은 휴관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유효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